



## 칼럼

## 《전라도 천년사》 ‘논쟁’을 지켜보며

《전라도 천년사》 논쟁이 뜨겁다. 최근까지도 학계, 교육계, 지역 민간단체 및 심지어 정당까지 참여하여 논쟁이 한창이다. 《전라도 천년사》는 2018년부터 5년간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213명의 필진을 모아 24억 원을 들여 전 34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총집결해 진행해 온 작업으로 그에 대해 학계에서 문제 삼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학계 바깥에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사실 ‘논쟁’은 아니다. 논쟁이란 모름지기 공통의 룰에 기반하여 팩트와 논리로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다. 그런데 이 ‘논쟁’은 그런 성격의 다툼이 아니다. 팩트의 오류와 논리의 허점을 아무리 지적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반복한다.

이런 무의미한 다툼이 공공기관의 토론회나 심지어는 TV토론회에서 멀쩡하게 전개된다. 유튜브로

잠깐 들여다보니 《전라도 천년사》를 집필한 학자들이 상대 측 패널들을 향해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보면서도 화가 나던데 웬케도 점잖은 태도를 잃지 않고 ‘토론’에 임하고들 계셨다. 경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학문이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학문이 정치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정도 문제다. 한국만큼 학문이(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정치에 흔들리는 경우는 적어도 선진국 중에서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문·논리·팩트가 아니라 여론·정치가 진리를 판정한다. 전문가 집단이 확정된 사실도 대중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면, 즉각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전문가에 도전한다. 이들의 무기는 지식·논리·팩트가 아니라 대중여론이다. 장사가 되겠다 싶으면 정치인이 가담하기 시작한다. 전문가가 비전문가와 ‘논쟁’하는 것만큼 어렵고 무의미한 일도 없다.

전문가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많은 전문가·학자들이 정치화되면서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학자라고 정치적 성향이 없을 수 없지만, 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할 단계에 이르면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커녕 정치진영의 스피커 노릇



박 훈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을 하며, 자신의 전문영역을 정치화시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한 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세금과 기부금이 든다. 나도 대학교수이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학생 시절 장학금에서부터 현재 연구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공공적 자금의 도움을 받아왔다. 왜 한 사회는 돈을 들여 전문가를 키워내는가?

《전라도 천년사》 ‘논쟁’을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밥값 하라고 전문가를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 키운 것이다. 전문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만약 어떤 전문가가 오류를 되풀이한다면 그는 더 이상 전문가의 평판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게 학문

의 료이다.

이참에 역사학자와 인문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된 근저에는 그동안 학계에 확산시켜온 민족주의 사관이 도사리고 있다.

심재훈 단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20세기 후반 역사 연구의 대세였던 한국사 확장과 아름답게 꾸미기가 고스란히 국사 교과서에 반영되어 대중의 역사인식을 지배”하고 있다며 “21세기 들어 민족주의 경향이 줄어들고 있는 역사학계에서 유사역사학 측의 얘기가 아무리 틀렸다고 설명해도 대중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다. 자업자득이라 하면 심한 말이겠지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학계는 헤이그 이준 열사의 죽음, 청산리대첩, 안중근과 모친 조마리아에 관한 것이 문제에 대해선 도진순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편지’와 ‘전언’, 조작과 실체’, ‘역사비평’ 142호, 2023 참조 등 그간 과장·왜곡되어온 사실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팩트의 탐’을 다시 쌓아 올리자.

\*본 칼럼은 《경향신문》(2023. 7. 6)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가 일부 수정하여 전재함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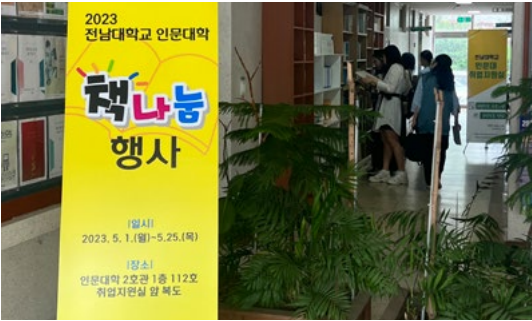
- |      |          |         |                |      |              |      |    |
|------|----------|---------|----------------|------|--------------|------|----|
| • 02 | 인문대학     | • 05-09 | 인사             | • 16 |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 • 19 | 취업 |
| • 03 | 함께하는 인문학 | • 10-13 | 학과 및 협동과정      | • 17 | 연구소          | • 20 | 광고 |
| • 04 | 교직원 동정   | • 14-15 |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 • 18 | 신간도서         |      |    |

인문대학

책 나눔 행사  
개최

인문대학(학장 이성원, 사학과 교수)은 교원이 보유한 전공과 교양 서적을 기증받아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인문대 2호관 1층 취업지원실 앞 복도에 진열하여, 학생 또는 시민들이 필요한 책을 쉽게 찾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책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책 나눔 행사는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 조성을 하고자 기획되었다.



국어국문학과  
이준환 교수  
용봉학술상 수상

6월 8일 민주마루에서 개최된 전남대학교 71주년 개교기념식에서 국어국문학과 이준환 교수가 신진연구자 부문 용봉학술상을 수상했다.

용봉학술상은 전남대의 명예를 드높이고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보인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주먹밥 나눔 행사  
개최

인문대학은 인문대학 '모해' 학생회(학생회장 윤태우, 철학과)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고자 5월 18일 오후 1시부터 인문대학 3호관 옆 벤치에서 주먹밥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시민의식의 상징 중 하나인 주먹밥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참여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들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의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인문대학 학생  
등꽃체전 개최



교내 대운동장에서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인문대학 등꽃체전이 열렸다. 인문대학 8개 학과 학생들의 화합과 협동을 모색하는 체육대회 행사에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와 함께 학생-교직원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함께하는 인문학

2023년 상반기 <함께하는 인문학:나와 전남대, 그리고 우리의 인문학>

전남대학교와 지역 사회가 사랑하는 본격 인문학의 향연, <함께 하는 인문학>이 재개되었다. 인문대학은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상황으로 수 년간 진행되지 못했던 이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인문학의 기본은 사람이며 그 방법은 다시 모이고 대면하며,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취지에 따라 인문대학은 <함께 하는 인문학>을 통해 이 점을 재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에서 30여년간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셨던 원로 교수님을 모시고 문학, 역사, 철학 등 소위 문·사·철이 망라된 풍요로운 주제로 진행했다.

프로그램 통합 주제는 “나와 전남대, 그리고 우리의 인문학”이며, 이번 강의 일정과 구체적인 주제는 아래와 같았다.

| 구분 | 일시                          | 강의 주제                            | 강사            |
|----|-----------------------------|----------------------------------|---------------|
| 1차 | 2023. 3. 30.(목) 18:00~20:00 | 전남대학교와 31년, 시가·호남·누정을 화두 삼아      | 국어국문학과 김신중 교수 |
| 2차 | 2023. 4. 27.(목) 18:00~20:00 | 영어, 영소설, 그리고 율리시스                | 영어영문학과 민태운 교수 |
| 3차 | 2023. 5. 25.(목) 18:00~20:00 | 몰리에르 희극의 언어적 확장 -중세 소극에서 근대 오페라로 | 불어불문학과 임채광 교수 |
| 4차 | 2023. 6. 15.(목) 18:00~20:00 | 서양 고대 세계의 탐색, 나와 우리의 그리스 학       | 사학과 최혜영 교수    |
|    |                             |                                  | 철학과 이강서 교수    |



교직원 동정

겸 무

본부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이수원  
- 교양교육위원회 위원  
2023. 7. 1. ~ 2025. 6. 30.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연민  
- 교무부처장  
2023. 7. 10. ~

부속시설

불어불문학과 교수 김태훈  
- 학생징계위원회 위원  
2023. 3. 2. ~ 2025. 2. 28.

철학과 교수 김양현  
사학과 교수 김병인  
- HK인사위원회 위원  
2023. 4. 1. ~ 2025. 3. 31.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재형  
-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기간: 2023. 5. 22. ~ 2025. 5. 21.)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주노  
철학과 교수 김양현  
호남학연구원 교수 최유준  
- 문화전문대학원위원회 위원  
(기간: 2023. 7. 18. ~ 2025. 7. 17.)

정년· 명예퇴직

2023. 8. 31일자  
-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신중  
- 불어불문학과 교수 임채광  
- 사학과 교수 최혜영  
- 영어영문학과 교수 민태운  
- 철학과 교수 이강서  
- 일어일문학과 교수 김대성

연구년·파견

철학과 교수 정미라  
- 독일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대학교 파견근무  
2023. 7. 27. ~ 2023. 8. 26.

사학과 교수 김봉중  
- 2023. 9. 1. ~ 2024. 8. 31.

인사발령

2023. 3. 1일자  
-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최준  
-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문성욱  
- 불어불문학과 객원교원 이철의

2023. 3. 1일자  
- 불어불문학과 조교 김단오

2023. 7. 1일자  
- 인문대학 팀장 김미령

학과장 / 주임교수 / 사업단 / 연구소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김성훈  
- 영미문화연구소장  
2023. 3. 1. ~ 2025. 2. 28.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주노  
- 중국인문연구소장  
2023. 3. 9. ~ 2025. 3. 8.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송한용  
- 사학과장 / 대학원 사학과 주임교수  
2023. 7. 17. ~ 2024. 8. 31.

인사



김 신 중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년, 연구실을 정리하며

벌써 정년이다. 대학에 갓 임용되었을 때는 물론 얼마 전까지도 정년을 맞는 선배들을 보며, 그것 이 나오는 무관한 남의 일이라 여겼었다. 그런데 어언간 30년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났다. 영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말 그대로 쏘살같이 흘렀다.

이쯤에서 ‘무사히 정년에 이른 게 감사하다’던 선배들의 상투적 연사가 새삼스럽다. 물론 내가 지 나온 날들에 대한 소회도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너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특이하 게 대답할 무언가가 섣뚱 떠오르지 않는다.

정년을 앞둔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연구실 정리이다. 이미 활용한 연구 자료를 있는 대로 모 아두는 성격이 아닌지라, 내 연구실에 있는 책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쌓인 것이 책상 좌·우·전면의 서가를 가득 채웠으니,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다행히도 근래 인문대에서 마련 한 두 차례의 책 나눔 행사를 통해 그 분량이 절반 가까이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남은 게 만만치 는 않다.

전자화된 정보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언제부턴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책. 어렵사리 구한 자료들 마저 품 나는 기증은커녕 재활용 폐지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격세지감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항차 연구실을 비우고 대학을 떠나는 마당에, 그중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 저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고 누군가는 다시 학교 밖에 새로운 연구실을 마련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것 역시 또 다른 구속의 시작으로 여겨지기에, 가능한 한 가벼운 행색으로 교문을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대학을 떠나며 버려야 할 것이 책만은 아니다. 그동안 교수랍시고 우려왔던 여 러 혜택이나 배려를 비롯하여,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느낀 즐거움도 내려놓아야 한다. 물론 그 대가 로 얻는 것도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구속 없는 게으른 일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신고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부러 밝히지도 않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 ‘퇴직을 하고 나니 각주 없이 글을 써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 좋더라’는 어느 선배 의 말이 떠오른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우리 전남대학교와 인문대학의 큰 그늘 속에서 시가와 호남과 누정을 이 야기하며 충분히 넉넉한 삶을 살았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 가 는 앞날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면 좋겠다.



민 태 운  
영어영문학과 교수

“꼭꼭 속았수다”

“꼭꼭 속았수다”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으로 현재 촬영이 진행 중인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드라마 제목이다. 어느 날 조교를 통해 내 연구실에서의 드라마 촬영요청이 왔다. 70년대 교수 연구실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오래된 집기도 좋지만 특히 책이 많은 것이 담당자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촬영 예정시기인 3월 초까지 나는 책을 거의 이동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일정이 늦추어지면서 7월 초에야 촬영이 이루어졌다.

그때쯤 나는 이미 책의 대부분을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선별된 일부만 서재로 옮긴 뒤였다. 또한 그때쯤 이미 마지막 수업을 하고 학회, 학과, 제자들 등의 환송회까지 마친 뒤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구실의 한쪽 벽에 많지 않은 책을 남긴 채 마지막으로 연구실 문을 닫고 떠난 지 딱 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만약 3월 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시기상조였을 것이다. 그런데 수업과 교내외 행사 등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뒤 그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지면서 마치 모든 것이 마무리된 나에게 그 드라마 제목은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수고 많았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열심히 일했다, 고생했다, 노력 많이 했다, 오래 버텼다 등의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이 끝났을 때 의례적으로 하는 표현으로 일의 종료를 알리기도 한다.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느 교수와 마찬가지로 강의하고, 논문 쓰고, 회의하고, 논문지도하고, 학생들 만나고, 서류작성하고, 논문발표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 최소한 나 자신으로부터는 의례적이거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른다. 생각해 보면 주로 연구실과 강의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나마 연구실의 책들과 강의실의 제자들이 있어주어서 덜 외로웠을 것이다.

다른 직장인들은 퇴근 후 일을 놓는데, 다음 날 수업 준비하느라, 지도학생 논문 고쳐주느라, 내 논문 쓰느라 퇴근해서도 일을 해야 할 때는 이런 형편을 놓고 투덜거린 적도 없지 않았다. 시험답안지 채점하고 성적을 매기면서, 보고서, 연구계획서, 면담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교수는 연구와 강의만 하는 줄 알았던 나의 순진한 무지를 탓한 적도 있었다.

“꼭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밖에서 “꼭꼭 속았다”로 들릴 것이다.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어떤 견고한 것이 꼭꼭 무너져 내리니 속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를 마치고 연구실을 마지막으로 나서던 순간 그 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문에 부착된 내 명패를 보며 나는 잠시나마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들었다. 연극이 끝난 뒤 누군가가 안겨주고 간 꽃다발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배우가 느꼈을,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낮선 정적이 침입해 오기 시작할 때 주인이 느꼈을 그런 감정 비슷한 것이었을까?

물론 몇 달 동안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내 마음도 준비해 왔기에 이런 기분이 나를 오래 질질 끌고 가지는 못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과감히 털어내고, 지우고, 없애고, 의도적으로 망각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빗바랜 엽서, 카드, 편지, 국내외 학회 자료들, 필기되거나 복사되고,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유에스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수업 및 연구 자료들, 누군가가 찍어준 세월을 느끼게 하는 사진들, 학회 및 세미나 포스터 등...

그중 대부분을 떠나보내고, 그때까지도 꺼안고 있던 유학시절 박사학위 논문을 쓰며 기록했던 몇 장자의 독서카드들, 종합시험을 위해 준비했던 노트들과도 작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사한 햇볕 속에 책 내음이 머물러 있던 그 곳을 떠나려는 순간 불현 듯 “나는 잠시 연극을 한편 보고 온 것일까?”하는 생각이 엄습해 오는 것이었다. 이제 내 정년과 함께 인문대 연구동이 헐리게 되면서 내 연구실은 드라마에서 허구의 공간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었다. 내가 남기고 떠나는 세계는 벌써 저 너머 멀리 손에 잡힐 듯 말 듯 비현실적으로 부유하고 있었다.



최 혜 영  
사학과 교수

전남대와 함께 한 날들을 돌아보며

전남대학교와 인연을 맺은지 올해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5년의 기다림 끝에 임용이 되었을 때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선생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지 못하였다는 아쉬움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잘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참 애석한 마음입니다. 여러 교수님과도 더 깊은 사귀기를 갖지 못한 것도 아쉽고, 정년 이후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귀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인간의 다른 이름은 관계’라는 마르틴 부버의 말이 더욱 와닿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열심히 연구할 것을 하는 마음은 덜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조금 떼어내어 학생을 비롯한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좀 더 봄에 새싹이 돋는 모습과 꽃을 바라볼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되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오랜 여정 다음, 하나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인 지금, 늘 바라고 있었으면서도 못해 보았던 여러 일들을 해볼 것을 생각하니 기대와 흥분 등 여러 기본 감정들이 교차됩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추상적으로 정리해보니, 자연과 보다 가까이 하는 삶, 여러 다른 문화와 환경을 접촉해보는 것, 동물들과 좀 더 교감하기, 무엇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공한 학문을 앞으로 어떻게 창조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늘 고민할 것입니다.

칼 루이스가 ‘인간 고통의 80% 이상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누구이든-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부는 이혼할 수 있지만 직장 동료는 그럴 수도 없다’고 하신 한 교수님의 우스개도 생각납니다.

얼마 전에 메일함을 정리하다보니, 수많은 학생들과 여러 일로 대화를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모두 어디서든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문에 인생의 방향을 두고 달려오신 모든 동료 교수님들께서도 늘 행복하시고 앞으로 아름다운 뜻이 잘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등으로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최근 몇 년 사이에 오신 교수님들, 또 이번 학기에 임용되실 교수님들의 건강과 복된 날들도 기원합니다.

인생의 완숙기라 할 시절을 함께 하여 저의 아름다운 고향이 된 전남대 인문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늘 기원하겠습니다. 살롱.



문 성 욱  
불어불문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올해 1학기 임용된 불어불문학과 문성욱입니다. 기쁘면서도 얼떨떨하게 전남대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니 새삼 아득한 마음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학기를 보내는 사이 경험과 식견이 부족한 탓에 자주 허둥거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여러 선생님의 눈에도 띄었으려니 생각하면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저의 부족함을 성장의 가능성으로 여기신, 지적 대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너그러운의 크기에 견주어 맡겨진 책임의 무게를 가능해 볼 따름입니다.

저의 전공은 중세 프랑스 문학이며, 13세기 파리에서 활동한 시인 뤼트뵈프(Rutebeuf)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에는 작품 번역도 그에 대한 연구도 희소한지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낯선 작가겠습니다만, 고백하자면 제게도 여전히, 다분히 그렇습니다. 나름 여러 해 동안 그의 작품을 읽었지만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는 확신보다 오해의 두려움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기야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21세기를, 그것도 한국을 사는 우리에게 물경 팔백년 전의 프랑스는 아리송한 세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리송함으로, 저 옛날 먼 나라의 문학은 지금 여기의 사고와 감수성을, 그중에서도 문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매체의 틈바구니에서 고리타분하게만 보이는 문학의 역사가 사실은 부단한 실험의 역사라는 것, 언제고 그 자리에 붙박여 있었을 것 같은 ‘고전’ 뒤에 종잡을 수 없는 좌충우돌의 이력이 숨어있다는 것이 중세문학의 전언입니다.

뤼트뵈프를 예로 들면, ‘거친 소(rude bœuf)’라는 가명과 신 여 편의 시를 남겼을 뿐 생물연도조차 알 수 없는 신원미상자는 그럼에도 어느덧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어떤 ‘문학적’ 특질을, 이를테면 글쓰기라는 행위의 오롯한 책임자로서 저자의 의식 같은 것을, 완성태가 아닌 발명의 도중에, 어렵풋하지만 그만큼 신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익숙한 것을 반성하고 통념을 비판하는 것이 문학과 인문학의 본령이라면 저의 공부도 이처럼 몇 개의 질문을 덧붙이며 그 꼬트머리에서 작은 역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고민을 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다분히 철없는 마음으로 대학원 전공을 선택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중세문학을 업으로 삼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의 일원이 되리라는 것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이 행운이 요행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떳떳하려면, 그리하여 제게 곁을 내 주신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직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하리라는 다짐을, 그 사이 조금만 더 너그러운을 베풀어 주십사하는 부끄러운 청원을,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 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문대학의 구성원들 앞에 인사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소속되어 교육, 연구, 봉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최준입니다.

인사말 원고를 요청 받고,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난 가을, 우리 대학교 공채 원서를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교육 및 연구 계획서가 생각났습니다. 당시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할까’에 가까운 마음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합니다. 더불어 밝은 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할 것을 다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한 사람을 몇몇 문장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저라는 사람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국어정보학’, ‘융복합’ 등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어정보학’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정보학’을 전공으로 하여 ‘말뭉치 언어학’과 ‘국어어휘론’을 세부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인문대 내 다른 어문학 전공 선생님들과 차이가 있지만, ‘언어’, ‘언어 텍스트’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문학 전공 선생님들뿐 아니라 언어 텍스트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측면에서는 역사, 철학 등의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고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초임의 연구자이기에 확장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탄없는 말씀으로 한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융복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학부 시절 공대 환경공학을 전공하였고,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으로 하여 공학사와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융복합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에 의한 관건으로 탄탄한 개별 전공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접 분야 혹은 관련 가능 분야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때 비로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위기’의 임시방편적 탈출구로서의 ‘융복합’이 아니라, 의미 있는 ‘융복합 인재 양성’ 및 ‘융복합 연구’를 위해 저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아직 익숙치 않은 역할과 공간에 스며드는 데 있어 인문대학 선배, 동료 교수님, 그리고 다른 교직원 선생님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친절한 시선과 따뜻한 말씀, 배려 넘치는 몸짓을 통해 가장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10여 년 전, 결혼을 앞둔 저에게 은사님께서 말씀하신 ‘상경여빈(相敬如賓)’이라는 성어에 담긴 의미를 실천하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학과

국어국문학과

4년 만에 ‘모꼬지’ 성료…80명 참석



4년 만의 국어국문학과(학과장 조재형 교수) 모꼬지가 3월 7-8일 양일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총 80명의 재학생과 신입생이 참가했다.

국어국문학과 전공탐색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야외 레크레이션과 선배들의 학과 생활 이야기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신입생들에게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학과 내의 소속감 및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었다.

‘새날열기’ 70명 참석으로 순조롭게 진행



3월 30일, 학과와 학생회 주도로 학생회의 전년도 사업 결산 및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새날열기〉행사가 개최되었다. 총 175명의 재직인원 중 70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인문대 3호관 소강당에서는 개시를 앞두고 과장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지난 학년도의 예산 집행 내역과 2023학년도 학생회의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2023학년도 학생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학생들 간의 소속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영어영문학과

2022학년도 국제화영역 우수학과 선정

영어영문학과(학과장 김성훈 교수)는 2022학년도 학과(부)평가에서 국제화영역 우수 학과로 선정된 바 있다. 국제화영역은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해외파견 학생 비율,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어 강좌 개설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영어영문학과는 전공 특성에 맞게 재학생들의 해외파견이 많은 학과로,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이 영어권 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파견하고 있다.

또한 영어영문학과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영어영문학과에서는 교내·외로 글로벌한 환경에서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전공 역량을 키울 수 있겠다.

영어영문학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주한미대사관 공공외교과 공보공사 참사관 미팅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지난 6월 주한미대사관 공공외교과 공보공사 참사관 Robert Post를 비롯하여 공공외교 총괄과장 외 직원들과 영어영문학과 재학생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미대사관에서는 영어영문학과에서 2020~2021년도에 각각 진행했던 〈Save Myanmar〉, 〈Stand with Ukraine〉프로젝트에 크게 감명받아 주체적으로 활동했던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하였다.

미대사관에서는 영어영문학과 재학생들이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활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 귀감이 되었다며, 향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응원하였다.

독일언어문학과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독일언어문학과(학과장 정명순 교수)는 유라시아인문융합연구소, 숙명여대 숙명인문학연구소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에 총 3회에 걸쳐 〈혐오의 시대:현황과 극복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포럼을 실시했다.

이 포럼은 각각 〈혐오나 인정이나?〉, 〈혐오의 활용과 안티 페미니즘의 대부상〉, 〈혐오와 세대 문제:꼰대와 MZ세대, 공동의 서사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잇따른 전쟁 속에서 한국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혐오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어 문학 강독반〉 운영

독일언어문학과에서는 학부 전공생들과 대학원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키우고자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3년 하계방학 독일어 문학 강독반을 개설해 운영했다. 일정은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8주간 진행되었다.

불어불문학과

2023년 하계 프랑스어 캠프



불어불문학과(학과장 이수원 교수)에서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 동안 '2023년 하계 외국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DELF A1, A2, B1-B2 단계로 나누어 총 3개의 분반을 운영하여 프랑스어 능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좌가 운영되었다.

외국인교수 2인(리오넬 브르노, 제레미 에셋트, 바네사 레진), 불어불문학과 교수 일동, 조교, 학생들(김하늘 외 41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수업 현장에서 교육하기 힘든 언어 지식과 문화적 능력, 학문적 접근을 심화시키며 전공 적성의 심화와 진로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불어불문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하여 2023년 2월 말에 '2024년 동계 외국어 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어중문학과

제1회 e스포츠대회 개최

5월 2일 중어중문학과(학과장 문유미 교수) 학생회 주관 '중문과 제1회 e스포츠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플래시게임 부문, 피파온라인 부문, 리그오브레전드 부문, 서든어택 부문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본선 및 결선을 치렀다.

학생회 관계자는 e스포츠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학우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MZ세대의 최신 문화에 맞춰 e스포츠대회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차이나(China)는 진로설계캠프’ 운영

중어중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차이나(China)는 진로설계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단과대학 맞춤형 자율혁신 지원 사업으로 8월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나흘간 김남주 기념홀에서 진행했다. 캠프는 학생들의 최근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힘〉, 〈데이터로 인문학하기〉, 〈면접 대비 실전 이미지메이킹 IT COLOR〉, 〈디지털시대, 차이나 리터러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캠프 시작 전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마감되는 등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학과는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향후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어일문학과

2022학년도 우수 개선학과 선정

2022학년도 학과(부)평가 우수 개선 학과(인문사회/예체능)로 일어일문학과(학과장 김정례 교수)가 선정되었다. 일어일문학과는 전년도인 2021학년도 대비 순위가 24위 상승하였다.

전남대-메이조대 한일 대학 간 교류회



3월 14일,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는 일본 메이조대학 도시정보학부와 한일 대학생 교류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교류회는 캠퍼스 투어와 간담회로 구성되어 진행했으며,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를 투어하며 메이조대 학생들에게 전남대학교와 광주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한국 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간담회에서는 메이조대학과 나고야에 대해 소개받고 일본 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대화를 통해 양국 대학생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학과

2023학년도 1학기 사학과 춘계 정기역사답사



사학과(학과장 설배환 교수)에서는 3월 23일(목)부터 3월 25일(토)까지 2박 3일간 춘계 정기역사답사를 진행하였다.

사학과 교수와 학생을 포함해 약 80여 명의 인원이 답사에 참여하였다. 춘계 정기역사답사 지역은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일원으로, 천안을 시작으로 서산, 부여, 공주, 익산 등 여러 장소의 문물을 탐구하였다.

강의실에서 수행한 문헌 및 이론 학습과 시공간, 문물, 인류의 변혁을 현장 답사를 통해 실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인문대학 등꽃체전 사학과 종합우승



사학과는 5월 2일(화)과 3일(수) 이틀 동안 진행된 인문대학 등꽃체전에서 종합우승을 거두었다. 전년도에도 종합 2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에 이어 올해에는 학생들이 더욱 의기투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줄다리기 1위, 소프트볼 2위, 발야구 2위 등 개별 종목마다 활약하였고, 특히나 사학과 학생들이 가장 선전하지 못했던 축구에서 3위를 거머쥐며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이 있었다.

이번 등꽃체전은 사학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학과 장학금〉전달식 개최

사학과는 5월 12일(금) 〈사학과 장학금〉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사학과 장학금〉은 이상식 명예교수가 기탁한 〈이상식 장학금〉과 최영태 명예교수가 기탁한 〈최영태 장학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식 장학금〉은 2003년에 정년퇴임한 이상식 명예교수가 후학양성을 위해 기탁한 기금으로써, 사학과에서는 그 뜻을 기려 학부 학생(3학년, 성적우수자)과 대학원 박사과정생(한국사 전공, 성적우수자) 각각 한 명에게 매해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이상식 장학생으로는 최영현(3학년)과 임현진(한국사 박사과정)이 선발되었다.

〈최영태 장학금〉은 2020년에 정년퇴임한 최영태 명예교수가 학생회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기탁한 기금으로써, 사학과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2021년에 처음 시행한 이후 올해에도 학생회 구성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철학과

전남대 철학과·5·18기념재단 공동 학술대회  
〈‘5·18’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 개최



철학과(학과장 김상봉 교수)와 5·18기념재단은 5월 24일(수)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 〈‘5·18’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성황리에 마쳤다.

연구자·학생·시민들이 1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철학자 강신주의 기조발제 2023년 5월, 혹은 벤야민의 충고-지금 우리는 살해된 형제들과 얼마나 연대하고 있는가? 를 시작으로 5·18항쟁의 해석사(손흥국 철학박사), 무위의 저항으로서 '양서협동조합운동'(남궁협 전 동신대 교수), 5·18과 기독교-유연창목사와 류동운열사의 경우(이현경 문학박사) 발표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축적된 실증 과학적 연구들의 성과 위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철학적 의미를 더욱 깊게 탐구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였다.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

월말 논문 스터디 실시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주임교수 이준환)과 국어국문학과(주임교수 장일구)와 연계하여 매달 논문 스터디를 개최하였다.

국어학과 한국어교육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며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매달 20명 남짓의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본인들의 학위 논문, 학술 논문, 연구 계획서를 발표 후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호남학과

호남사상문화의 원류찾기 답사 진행



호남학과(주임교수 김경호)는 4월 8일 승주 송광사 답사를 시작으로 6월 3일까지 강진 백련사, 화순 운주사, 보성 대흥사, 장흥 보림사, 다산초당, 백운동 원림, 기양사 등 호남 불교사상과 실학사상, 호남유학사상의 원류를 찾아 주임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여한 답사를 진행했다.

2022학년도 후기 석·박사학위청구 논문  
공개발표회 실시

호남학과는 5월 12일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 석·박사학위청구 논문 공개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석사과정 이석현(학도 양평순 가게의 도학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이홍범(미를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 등 2명의 대학원생 발표 후에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동학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석현 대학원생의 경우 7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문 연구에 열정을 보여 다른 대학원생들의 모범이 되었다.

(JOB 로드맵)2023년 1학기  
학생취업활동을 위한 응시로 지원 사업

철학과는 철학과 학부생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Job로드맵 응시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철학과 재학생에 한해 2023년 3월~8월 중순 중으로 취득한 각종 어학 및 자격증에 대한 시험 응시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학(원)생 학위 논문 졸업논문 공개발표회 개최

철학과는 5월 19일(금)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안민수(석사과정, 지도교수: 정미라, 통일의 원리로 서 사랑-해결의 청년기 저작들을 중심으로 외 석사과정생 2명이 발표했고, 3명 모두 이번 8월에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또한 학과는 5월 26일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오태화(지도교수: 양순자, 노자의 소국과민을 통해 바라본 지방자치분권의 미래 ) 외 11명의 학생이 발표했다.

인문커뮤니티협동과정

전문가 초청 강좌 개최



인문커뮤니티협동과정(주임교수 정미라)은 협동과정 대학원생의 인문커뮤니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3호관 202호에서 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총 3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강좌를 개최하였다.

1차에서는 ‘결핍이 피워낸 들꽃’이라는 강자로 김지유 문화공간나무와 숲 대표를 초청하였으며, 2차에서는 ‘커뮤니티 문화·마을공동체·역사: 관계의 전환과 형성’이라는 강자로 문충선 장흥역사문화기록팀장을 초청하였다.

마지막 3차에서는 ‘사회적 참사를 통해 만난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안산희망교회 김은호 목사를 초청하였다.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지역어문학기반창의융합미래인재양성교육연구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BK21 FOUR 지역어문학기반 창의 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단장 장일구 교수)에서는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인문대3호관 301호에서2022년 2학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1학기 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제10회 공공실천클래스 개최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제10회 공공실천클래스를 개최하였다.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인문대학 3호관 301호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전남대 국문과 한정훈 교수는 ‘구술생애담 연구의 실제와 연구 방법’을 주제로 두 시간 동안 대학원생들 및 외부 참여 인원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제10회 창의융합클래스 개최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제10회 창의융합클래스를 개최하였다. 전남대 국문과 최준 교수는 ‘언어정보학적 연구방법론의 활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 및 실습을 통해 언어 정보학 연구에 대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제4회 포스터발표회 개최

핵심역량 페스티벌 첫 번째 날 두 번째 행사로 제4회 포스터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교육연구단 지원대학원생 22명의 발표가 두 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대학원생들의 관심 분야와 연구 진행을 점검해보고 자유롭게 질의 응답을 하며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제11회 전문심화클래스 개최



2023년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11회 전문심화클래스가 개최되었다. 강연자는 상지대 홍성태 교수로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대학원생들은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대면으로 참석하여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이 이루어졌다. ‘공동체와 생태주의’를 주제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제11회 공공실천클래스 개최



핵심역량 페스티벌 두 번째 날 오후 행사로 제11회 공공실천클래스를 개최하였다. 6월 22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된 행사에서는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가 ‘다문화 사회의 리터러시와 프락시스’라는 주제로 강연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11회 창의융합클래스 개최



제11회 창의융합클래스는 6월 22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개최되었다. 광주교육대 신동광 교수는 ‘시를 활용한 언어 교육의 현황과 가능성’을 주제로 두 시간이 넘는 강연 및 질의 응답을 통해 대학원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제10회 해외한국학클래스 개최



핵심역량 페스티벌 세 번째 날 행사는 제10회 해외한국학클래스로 6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었다. 베트남 하노이인사대 류 뚜언 아잉 교수는 zoom을 통해 약 두 시간 동안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며 인문대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대면으로 참석하는 지원대학원생들과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에서의 해외한국학 연구 동향’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의 한국학의 인지도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1회 해외한국학클래스 개최



2023년 7월 14일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제11회 해외한국학클래스가 개최되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약 10여분 정도 시작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오레곤대학교의 김지나 교수는 zoom을 통해 두 시간 넘게 ‘비교문화 연구 동향 및 연구방법론’에 대해 열정이 넘치는 강연을 진행하였다.

제12회 해외한국학클래스 개최



제12회 해외한국학클래스는 7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웰슬리 대학교의 황은하 교수가 ‘멀티리터러시적 접근법을 활용한 언어 교육 연구’를 주제로 두 시간 넘게 진행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강연에서 언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대학원생들은 활발하게 질의 응답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어권문화기억큐레이터양성교육연구단

청소년 문화기억 교육실습  
〈교실 밖 인문학-영어권 문화 체험〉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BK21 FOUR 영어권 문화기억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단장 김연민 교수)은 7월 13일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문화기억 교육실습을 진행하였다.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청소년을 위한 교실 밖 인문학-영어권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들은 지역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력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현재 사회가 당면한 문화갈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Lars Engle 교수 초청 문화기억 특강



교육연구단은 6월 13일(화) 털사 대학교(The University of Tulsa)의 라즈 잉글 교수를 초청해 문화기억 특강을 진행하였다. “Rethinking Modern Secular Cultural Memory – Shakespeare and the Second Secularization”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문화기억 큐레이팅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기억의 이론적 배경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International Monthly Book Discussions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제 대학원생 독회 모임을 진행하였다. 3월 24일(금), 4월 21일(금) 총 2회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Michael Rothberg의 The Implicated Subject를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글로벌 학술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HK+ 가족커뮤니티사업단

인문학연구원, 시민자유대학, 광주광역시 동구청  
3자 업무협약(MOU) 체결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철학과 교수)은 광주광역시 동구와 시민자유대학은 2023년 3월 30일 사람중심의 인문도시를 추구하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람중심의 인문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동구 인문학당에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2023년 전반기 달빛인문학-빛고을과  
달구별의 만남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5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19시~21시까지 인문대학 김남주기념홀과 106호 강의실에서 영호남 인문학자 상호 교차 강좌인 ‘달빛인문학-빛고을과 달구별의 만남’을 개최 하였다.

이번 강의는 5월 4일 김규중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의 ‘문학에 나타난 ‘사랑’이야기’를 시작으로 6월 15일 김덕수 대구고대 윤리학과 교수의 ‘철학자가 바라보는 ‘사랑’이야기 <사랑이나 존경이나>’라는 강연까지 총 6개의 강좌로 진행하였다.

제1차 국내학술대회 성료



인문학연구원은 5월 12일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106호 강의실에서 ‘한국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023년 제1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가족사 연구를 고대, 고려, 조선, 근대까지 망라하여 한국 가족사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가족사 연구 방향을 총체적으로 전망하고자 개최하였다.

2023년 공동학술대회 ‘5·18과 커뮤니티’ 개최



인문학연구원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와 함께 2023년 5월 25~26일 양일간 전남대학교 용봉홀과 김남주홀, 정보마루 컨퍼런스홀에서 ‘5·18과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기념 학술대회로 5·18과 미래 세대, 송기숙의 문학 등 5·18의 현재성과 커뮤니티적 관점에서 해석·재구성을 실시하였다.

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소

‘2023년 한일공동학술회의 개최

아시아문화연구소(소장 김용의,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일본의 동경학예대학교와 공동으로, 대면 및 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에 의한 ‘2023년 한일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1945년까지의 한중일 교류 동향’이라는 주제로 동경학예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 측 연구자 10여명과 일본 측 연구자 10여명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전문연구자 30여명이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서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였다.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대회 “손님이 오다: 접대의 정치·문화” 개최

4월 7일(금) 역사문화연구센터(센터장 박상철, 사학과 교수)는 (사)호남사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손님이 오다: 접대의 정치·문화”라는 제목 아래 한국사 및 동양사와 서양사, 나아가 사회학을 망라하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되어 학제 간 교류 및 학술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2023년도 국가편찬위원회의 학술회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치러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콜로키움 “불교와 이동성” 주최

5월 17일(수) 역사문화연구센터는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 소속 학자 이자벨 샤를뢰(Isabelle Charleux)를 초청 해 “불교와 이동성(Buddhism and Mobility: Itinerant Monasteries of Mongolian and the Case of Ikh Kh ree/Urga, 16th~19th Century)”이라는 주제로 줌(zoom) 온라인 콜로키움을 진행했다. 이자벨 샤를뢰는 16~19세기 몽골 지역 내 존재하던 이동사원을 통해 유목민족과 불교, 특히 유목민족의 이동생활과 불교의 정주성이 어떤 역사적 상관관계를 맺었는지 심도 깊게 연구한 성과를 발표했다.

인문학연구소

『용봉인문논총』 제62집 발간

인문학연구소(소장 신해진,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4월 말에 『용봉인문논총』 제62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62집은 언어·문학·문화 전반의 주제를 아우르는 13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중국인문연구소

전남대학교 중국인문연구소 설립

2월 28일 중국인문연구소(소장 이주노, 중어중문학과 교수) 설립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중국인문연구소는 전남대학교 부설연구소로서 2023년 2월 23일 설립 승인받았다. 기념식에는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문유미 교수의 환영사와 연구소장 이주노 교수의 인사말 및 경과보고에 이어 김재승 명예교수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와 업무교류협약 체결

5월 20일(토)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에서 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원장 이중희)와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향후 중국학 연구 및 교육의 진흥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중국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호협력 운영, 학술 관련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 및 프로그램 상호협력 운영, 두 기관의 자료 DB, 정보 서비스의 개발 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 연계와 유기적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인문연구소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3명 선정

중국인문연구소가 2023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지원사업에서 3명이 선정되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학술연구교수로 선정된 교수는 이여빈, 정해리, 한담 교수이다. 이여빈 교수는 <티베트문학 속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자시다와(西達娃)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라는 연구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정해리 교수는 <중국 근대문예론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논의들:왕귀웨이(王國維)의 문예담론으로부터 중국 근대문예(소설)개론 정립까지>라는 연구과제로, 한담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민·국가상(像)의 형성과 변화-고등어문교과서의 문학·비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라는 연구과제로 선정되었다.

하계 교육프로그램 동양 고전강독 운영

하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중어중문학과 오만중 교수의 <시경(詩經)> 주석독회와 철학과 이원석 교수의 <주자어류(朱子語類)> 강독을 진행했다. 오만중 교수의 <시경(詩經)> 주석 독회는 <시경>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각 시기를 대표하는 주석을 통해 원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각 시대별 경학(經學), 이학(理學), 고증학(考證學) 등의 서로 상이한 관점에 따라 <시경> 해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원석 교수의 <주자어류> 강독은 중국인문연구소와 철학연구교육센터의 공동 주관으로 제3권 ‘귀신(鬼神)’과 제4권 ‘성리일(性理一)’을 위주로 강독을 진행했다.

신간도서



**바진의 수상록** 이희경 역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20세기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바진(1904~2005)은 『열망』, 『격류 삼부곡』, 『애정 삼부곡』, 『휴식의 정원』, 『차가운 밤』 등의 문학작품 창작 및 다수의 번역을 통해 중국현대문학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그가 1978년말부터 1986년까지 8년간 집필한 산문집 『수상록』은 작가의 창작 생애 후반기를 대표하는 걸작이자, 중국의 1980년대를 이해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수상록』에서 바진은 ‘반후평운동’, ‘반우파 투쟁’, ‘문혁’ 등 과거의 정치운동, 신중국의 문예 정책, 개방개혁 이후 발생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중국 현대지식인의 사상적 역정과 역사적 경험으로 얻게 된 상처를 독특하고 세심하게 기록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향을 일으켰다. 수상록은 그동안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한국어판은 일본어판에 이은 두 번째 완역본으로 한국 독자들이 중국현대사회를 이해하고 중국지식인의 고뇌를 가늠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소쇄원 한시선** 김대현 역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소쇄원의 ‘소쇄(瀟灑)’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맑을 소(瀟)나 깨끗할 쇠(灑)자는 어려운 한자이지만, ‘소쇄’라는 단어의 시원한 어감이나 뜻으로 인해 옛 문인들 사이에 시어로 많이 사용되었다. 소쇄원은 고산鼓山을 배경으로 그 계곡을 흐르는 물과 지형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조영된 원림이다. 그 곳에 양산보는 누각과 대, 담장과 문, 그리고

각종 식물을 심어 자신의 이상을 구현하였다. 소쇄원은 조선시대 특유의 조경 문화를 대표하는 곳으로, 현재 명승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소쇄원이 만들어질 때부터 근대기까지 지어진 한시 150여 수 가량이 수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 30영』에 대한 좀 더 완전한 번역을 꿈꾸었다. 그러다 소쇄원의 현판 한시, 나아가 관련된 중요한 작품들을 추가하면서, 이 한시선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장자 외편** 양희석 역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2.

《장자》는 내편 7편, 외편 15편, 잡편 11편, 총 3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내편은 편마다 일정한 주제로 통일되어 있고, 일곱 편 전체는 “도와 함께 하는 웅혼한 삶”이라는 장자 특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한편 외편은 열다섯 편에 달하는 분량에 걸맞게 ‘다양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내편과 마찬가지로 장자다운 매력을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편과 사뭇 다른 면모를 동시에 보여준다. 우선 외편은 각 편의 제목을 붙이는 방법부터 내편과 다르다. 내편은 세 글자(예컨대 <소요유> <제물론>)로, 각 편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거나 상징한다. 반면 외편은 대부분 두 글자(예컨대 <변무> <마제>)로, 첫 대목에서 따온 편의적인 제목에 불과하다. 한 편을 포괄하는 주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연히 외편 전체를 관통하는 유기적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군자, 대인, 성(性) 등 내편에서 보기 드문 용어가 쓰이고, 심지어 내편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마저 종종 눈에 띈다. 간단히 말해서 외편은 여러 면에서 내편과 사뭇 다르다. 때문에 외편을 대하는 학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내(內)’의 대척으로서 ‘외(外)’, 즉 ‘밖’으로 취급하는 것이니, 한 마디로 장자의 저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편은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으로 말하자면, 내편이 꿰 구슬이라면, 외편은 아직 꿰지 않은 구슬이다. 그 구슬을 꿰는 역할은 우리의 몫이다. 설사 꿰지 않더라도 낱알의 구슬을 그 자체로 음미하여도 좋다. 흥미로운 우화 속에 깊은 이치가 웃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편이 농익은 수밀도라면 외편은 상큼한 풋사과이다.



**장자 내편** 양희석 역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2.

장자라는 인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책 장자이다. 현재 통행되고 있는 장자는 총 33편(내편 7, 외편 15, 잡편 11)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내편은 장자 본인의 저작이고, 외편과 잡편은 장주의 후학이나 유관 학파의 학자의 저술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렇다면 내편에 대한 정확한 해독이 장자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내편 7편은 내적으로 매우 밀접한 유기적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자족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장자 이해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1학기 인문대 취업교과목 『생애와 직업탐색』 운영

인문대학은 매 학기 취업교과목 『생애와 직업탐색』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취업준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교과목은 2·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와 같은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인문대 3호관 305호에서 총 60

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수업 내용은 채용 동향, 직무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NCS 및 필기전형, 면접 대비 스킬, 취업계획서 등 취업의 서류전형에서부터 마지막 면접까지를 포함하고, 주제별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본 교과목은 2학기에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문대 취업지원실 취업지원관(062-530-3118)에게 문의하면 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1학기 인문대 취업동아리 H-Union 운영



인문대학은 2023학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학 전공 특성을 반영한 취업동아리를 운영한다. 인문학 전공 특성을 반영한 문화 동아리 뿐 아니라 실제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직무에 대한 스터디 동아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취업동아리로 기획했으며 프로그램 명칭은 ‘인문대 취업동아리 H-Union’이다. 5월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가팀을 모집하였으며 총 11개팀 36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기업체 채용전형을 준비하는 취업팀과 문화콘텐츠 유관 스터디 활동하는 문화팀으로 나뉘 활동하고, 총 8차시 이상의 모임보고

서를 제출한 후 활동비(30만원/1팀)를 총 2회에 걸쳐 지원받는다. 참가팀은 7월말까지 활동을 마치고, 8월 10일(목) 팀별 성과발표회를 준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성과발표회 결과 총 4개팀이 우수팀(브런치 문학, 시선, 유지경성,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상 4팀)으로 선정되었고 8월중 시상금을 지급한다. 본 프로그램은 2학기에는 9월 중 프로그램을 공고 및 홍보하여 1학기보다 더 많은 팀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문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바란다.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 운영



우리 대학은 학생처 취업지원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다’는 사이다처럼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년 3월 참가 학생 총 6명을 선발하였고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된 서포터즈 팀원들은 인사이다 온라인 홍보 계정을 통해 카드뉴스/월간레터 취업정보를 매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여름 방학

에는 인문대 출신 취업 동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입사원)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홍보하였다. 2학기에는 중간고사 간식 지원 홍보 행사 등 인문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참신하게 기획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insida\_supporter를 검색하거나 팔로우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민족시인 김남주  
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

# 김남주 기념홀

---

개관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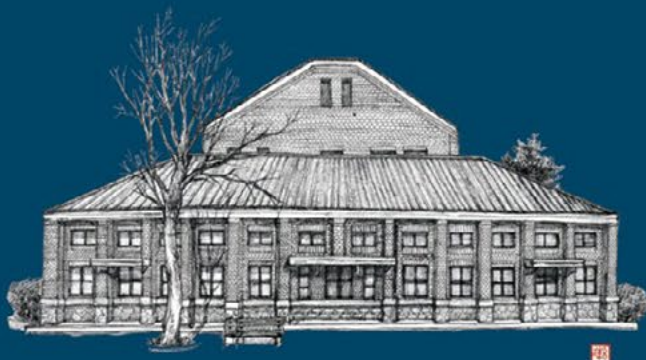
(5월 한정 개관)

---

특별개관

신청에 의함

행사 시에는 기념공간 관람이 제한됨



김남주기념홀 운영위원회